

브랜드 마린 세르(Marine Serre)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이 지 현*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패션에서 지속 가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되고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마린 세르 컬렉션에 나타난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마린 세르가 파리 컬렉션에 데뷔한 2018년 S/S 컬렉션부터 2026년 F/W 컬렉션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및 데드스톡 소재 활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재구성하여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과 재사용 개념을 환경성으로, 수공예적 요소와 장식적 표현을 강조한 개념을 쿠티르적 장식성으로, 과거 복식 및 문화적 요소를 재해석한 표현을 전통성으로, 이질적 소재와 기능의 결합을 의외성으로, 그리고 기존 의복 구조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을 해체성으로 구분하여 총 다섯 가지 조형적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은 단순한 친환경적 실천을 넘어 다양한 소재와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적 표현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조형적 특성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상호 결합하여 복합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을 환경적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조형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형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와 내러티브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지속 가능성, 마린 세르, 업사이클링, 조형적 특성

*교신저자: 이지현, jade2103@naver.com

접수일: 2026년 5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26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 2026년 6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류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2위로 꼽힌다. 옷은 생산부터 유통, 사용 후 버려지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며,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책임이 기업에 있다면, 사용 후 순환 과정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따른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을 받은 KBS 환경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1000억 벌의 옷이 생산되고 그 가운데 330억 벌이 1년 안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옷의 30%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Kwark, 2025).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확산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값싼 소재를 사용하고 빠른 소비 주기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류 생산과 폐기 주기가 더욱 짧아졌으며, 결과적으로 환경적 부담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친환경, 재생 등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Woo & Chung, 2015). 이와 같은 맥락으로 최근 패션 산업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디자인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데뷔 이후 끊임없이 지속 가능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리고 있는 패션 브랜드 마린 세르(Marine Serre)의 작품에 표현된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 마린 세르는 ‘2017 LVMH Young Designer’s Prize’를 거머쥐며 패션계에 나타났다. 수명을 다한 의류와 폐기된 원단, 생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마린 세르

는 ‘에코퓨처리스트(Ecofuturist)’라는 브랜드의 신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Myung, 2022). 마린 세르는 3살부터 16살까지 테니스 수업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스포츠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철학적이며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마린 세르에서는 업사이클링 의상을 ‘Regenerated’라는 이름으로 재정립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의상을 재해석하여 브랜드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Fashion Awards 2022 ‘지속 가능성-변화의 리더(Leaders of Change)’에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 지속 가능한 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연구로는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Eum & Oh, 2023; Kim, 2020; Lee & Lee, 2024)와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나타난 지속 가능한 패션콘텐츠에 대한 연구(Baek, 2025) 등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마린 세르 관련 연구는 지속 가능 패션의 개념적 특성이나 콘텐츠 분석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지속 가능성의 유형 분류나 디자인 특성 제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마린 세르는 환경적 메시지와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브랜드로, 조형적 특성 역시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패션은 단순한 친환경 실천이나 윤리적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시각적 조형 언어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조형 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린 세르 컬렉션 사례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및 데드스톡(deadstock) 소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 어떠한 조형적 특성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범주를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조형 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

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단순한 환경적 실천이나 개념적 분류 차원을 넘어 실제 디자인 안에서 구현되는 시각적 표현 방식과 조형 언어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의 의미와 표현 방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마린 세르가 파리 컬렉션에 데뷔한 2018 S/S(spring/summer) 컬렉션부터 최근 2026 F/W(fall/winter) 컬렉션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지속 가능한 패션과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특성 분석을 위한 이미지 자료는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보그 닷컴(www.vogue.com)의 런웨이 카테고리에서 공개된 마린 세르 컬렉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디자이너 인터뷰와 마린 세르의 공식 웹사이트(<https://www.marineserre.com>),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 인스타그램, 패션 전문 기사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컬렉션 정보와 소재 활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8 S/S 컬렉션부터 2026 F/W 컬렉션까지 공개된 총 807개의 작품을 1차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마린 세르 공식 유튜브 채널의 Regenerated 영상과 디자이너 인터뷰, 브랜드 공식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및 데드스톡 소재 활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선정 과정에서는 패션 디자인 전공 교수 및 패션 산업 실무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특성 여부, 시각적 대표성, 연구 목적 적

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80개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속 가능한 패션의 개념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n.d.)에 따르면 ‘Sustainable(지속 가능한)’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유지 또는 지속할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생태계의 파괴, 미래 세대의 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는 과거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라는 영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전반에 깊이 관여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디자이너들에게는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생산, 소재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함께, 제품 사용 이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패션 산업은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으며, 원단의 염색 및 가공 과정에서의 화학 처리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여기에 급변하는 유행을 기반으로 한 패스트 패션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현상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과잉생산 구조와 소비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Kim & Lee, 2006).

2.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Back(2014)은 패션 마케팅 활동에 나타난 지속 가능 디자인 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을 스마트 재료를 활용하거나 재활용 처리가 간단하며 생분해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를 친환경성, 고객이 제품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사이트로 기부한다던가,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의 특성이 있는 것을 공공성, 에너지 절약을 초점으로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경제성이라 설명하였다.

Back and Kim(2025)은 환경성, 경제성, 윤리성, 전통성, 독창성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Wi and Jung(2021)은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는 디자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원단 남용을 방지하는 패턴제작으로 특성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Lee and Lee(2024)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로 지속 가능 패션이 순환성, 기능성, 단순성, 해체성, 전통성, 수공예성, 의외성, 희소성, 자연성, 윤리성, 시간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다. Hwang and Lee(2023)는 친환경 소재 활용 디자인, 시간과 유행을 초월한 영원한 디자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디자인, 재생 가능한 리디자인(re-design),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희소성을 지닌 수공예적 디자인, 변형 가능한 다기능성 디자인, 특별한 의미를 주는 감성적 디자인, 윤리적 슬로건 디자인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의 특성을 총 여덟가지 맥락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Author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Baek, 2014	Eco-friendliness	Use of smart materials ease of recycling and biodegradable materials
	Fairness	Practices such as donations an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Economic feasibility	Reduction of waste and re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reuse
Baek & Kim, 2025	Environmental dimension	Eco-friendly materials redesign fashion
	Economic dimension	Zero-waste multifunctional fashion design
	Social dimension	Slow fashion ethical fashion design
	Cultural dimension	Multicultural and craft-based fashion design
Wi & Jung, 2021	Timeless design	Design emphasizing durability beyond trends
	Multi-purpose design	Garments designed for versatile use and adaptability
	Recycled material design	Use of recycled and eco-friendly materials
	Fabric waste prevention design	Minimizing leftover fabric
Lee & Lee, 2024	Circulation	Extending product life cycles and creating added value through recycling
	Functionality	Enhancing usability and protecting from external environments
	Simplicity	Minimizing processes and pursuing sustainable production
	Deconstructiveness	Reconstructing garments to redefine the role of materials
	Traditionality	Acceptance of other cultures and reinterpret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Craftsmanship	Expression through diverse materials and creative techniques
	Unexpectedness	Visual surprise through unconventional arrangement and recombination
	Rarity	Uniqu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eco-materials
	Naturalness	Expression through natural colors, patterns, and materials
	Ethics	Ethical production methods such as fair trade
	Temporality	Expression of time through aging or temporal elements

Author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Hwang & Lee, 2023	Eco-material design	
	Recyclable design	Redesign up-cycling
	Zero-waste design	
	Craft-based design	Emphasis on rarity through craftsmanship
	Timeless design	Design transcending trends and time
	Transformable design	Flexible and transformable design
	Emotional design	Design conveying symbolic meaning
	Ethical slogan design	

연구의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연구자에 따라 순환성, 재사용, 기능성, 전통성, 수공예성, 해체성, 의외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린 세르 컬렉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순환성과 재사용이 강조되는 경우는 환경성으로, 수공예적 장식과 장인정신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쿠티르적 장식성으로, 역사 복식 및 문화적 상징의 재해석은 전통성으로, 일상적 소재의 맥락 전환과 의외성이 강조되는 경우는 의외성으로, 기존 의복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해체성으로 범주화하였다.

III. 브랜드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1. 브랜드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 전략

프랑스 출신인 패션 디자이너 마린 세르는 벨기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디올(Dior),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에서 인턴을 하였다. 특히 마르지엘라에서의 인턴십은 의상의 재구성과 커팅에 관

하여 관심을 두게 되며 친환경을 강조하는 디자인에 영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Du & Kim, 2021). 마린 세르는 브랜드의 핵심을 ‘에코퓨처리스트’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부터 상당한 비중으로 재고 의류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마린 세르는 업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을 브랜드 운영의 핵심 프로세스로 인식하며 컬렉션마다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Eum & Oh, 2025). 이와 같은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단순한 환경적 실천을 넘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순환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마린 세르는 지속 가능성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디자인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업사이클링을 중심으로 한 재생 소재의 활용은 기존 자원의 재사용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용되지 않은 원단이나 쓰임을 다한 의복, 수거된 재료로 재구성한 디자인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린 세르는 재생 소재의 활용과 순환적 디자인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컬렉션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한 소재 활용과 다양한 요소의 결합과 해체, 재구성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적 실천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마린 세르는 2026년 ‘LE LOUVRE COUTURE’ 프로젝트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과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루브르 박물관의 걸작 『모나리자』를 차용하여 미니 퍼즐 드레스를 제작하였다(Figure 1). 마린 세르는 모나리자 이미지를 퍼즐 조각으로 분해한 후, 다시 조립하여 모나리자 회화 작품을 형상화한 드레스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치 있게 해석하였다. 제작에 420시간이 소요된 이 작품은 마린 세르가 얼마나 장인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며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증명하였다(Caldwell, 2026). 마린 세르 공식 홈페이지(www.marineserre.com)의 Upcycled 카테고리에서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 원단을 수집하고, 조합하는 과정은 이 브랜드의 핵심 기술이자 전문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단은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변형되며 각각의 작품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Love is to repair’라고 표현하며(Figure 2), 버려진 원단을 수집하고 다시 조합해 하나뿐인 예술작품과도 같은 의상을 만드는 브랜드 철학을 설명하고 있으며, 업사이클링을 브랜드의 주요 표현 방

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순환 개념이 단순한 환경적 실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소재를 새로운 구조와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례 선정 및 전문가 검토

본 연구에서는 2018 S/S 컬렉션부터 2026 F/W 컬렉션까지 공개된 마린 세르 작품 총 807개를 1차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마린 세르 공식 유튜브 채널의 Regenerated 영상과 디자이너 인터뷰, 브랜드 공식 자료 등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및 데드스톡 소재 활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선정 및 조형적 특성 범주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패션 디자인 전공 교수 2인과 패션 산업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지속 가능 패션 특성 여부, 사례의 시각적 대표성, 연구 목적과의 적합성, 조형적 특성의 구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반복 검토하였으며, 작품에 2개 이상의 조형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시각적으로 지배적인 특성을 우선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경



Figure 1. 2026 F/W.
From Verner, (2026).
<https://www.vogue.com>



Figure 2. Marine Serre Upcycled.
From Marine Serre Website, (n.d.).
<https://www.marineserre.com>

우 논의와 재검토를 통해 최종 사례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 총 807개 사례 중 280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특성과 마린 세르 컬렉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표현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다섯 가지 조형적 특성 범주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이 각 조형적 특성 범주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와 범주 재구성의 타당성, 범주 간 구분 가능성,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범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자원순환과 재사용의 표현 방식, 수공예적 장식성과 입체적 조형 표현, 전통 및 문화적 상징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 소재와 기능의 맥락 전환, 의복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방식 등이 각 범주의 특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 분석 기준을 확정하였다. 마린 세르 패션 사례의 선정 기준 및 전문가 검토 항목에 관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조형적 특성 범주의 재구성 기준과 전문가 검토 기준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2>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한 특성, 시각적 대표성, 연구목적과의 적합성, 사례의 적용 가능성, 자료의 검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5개 항목에 대한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VI 0.80 이상을 충족한 작품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280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마린 세르 컬렉션에 나타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형적 특성 도출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특성 개념과 선정된 280개 사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 표현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5개 조형적 특성을 재구성하였으며, 각 특성 범주의 타당성과 구분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분석 기준과 조형적 특성 범주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3.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은 업사이클링과 재생 패션의 하나로 특히 재고 원단이나 데드스톡 의류, 담요, 스카프, 타월, 주방용 걸레, 테이블 커버, 베개 커버 등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고, 더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폐자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마린 세

Table 2. Criteria for case selection and expert review of Marine Serre collection cases.

Evaluation criteria	Review criteria
Sustainability characteristics	Is the use of up-cycling and dead stock materials verified through official sources
	Are reused materials and circular utilization methods visually identifiable
Visual representativeness	Ar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visually apparent
	Ar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centrally expressed within the collection image
Relevance to research purpose	Is the case appropriate for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Can the case be utilized to explain the sustainable design characteristics of Marine Serre?
Applicability of cases	Does the case possess representativeness and analytical applicability for formative characteristics analysis
Verifiability of sources	Are the collection season and official source materials verifiable
	Can the use of materials be verified through designer interviews and official sources

Table 3. Reconstruction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expert review criteria.

Formative characteristics	Related concept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Reconstruction basis in this study	Expert review criteria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tion, reuse, up-cycling, eco-friendliness	Reconstructed based on cases in which the reuse and circular utilization of discarded garments and dead stock materials are visually emphasized	Does the category appropriately reflect the resource circulation and reus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Couture-like decorative characteristics	Craftsmanship, artisan spirit, decorative characteristics	Reconstructed based on cases emphasizing craft-based decoration and three-dimensional formative expression	Does the category appropriately explain craft-based formative and decorative characteristics?
Traditionality	Traditionality, culturality, historicity	Reconstructed based on cases in which traditional costume and cultural symbolic elements are contemporarily reinterpreted	Does the category reflect the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and cultural symbolic elements?
Unexpectedness	Originality, heterogeneous combination, contextual displacement	Reconstructed based on cases in which contextual displacement of everyday objects and functional materials is emphasized	Does the category explain the formative originality generated through contextual displacement of materials and functions?
Deconstructiveness	Deconstructiveness, reconstruction, transformability	Reconstructed based on cases in which new structures are created through deconstruction and recombination of conventional garment structures	Does the category appropriately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and decomposition of garment structures?

르는 자신의 데뷔 컬렉션인 2018년 첫 컬렉션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염두에 두며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S/S 컬렉션 작품 50% 이상이 중고의류와 빈티지 스카프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중고의류와 원단을 재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조형적 특성으로는 Eum and Oh(2023)의 연구가 있으며 조형적 특성을 환경성, 독창성, 가변성, 경제성, 수공예성, 시간성, 가용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디자인 관점에서 마린 세르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한 Du and Kim(2021)의 연구에서는 리유즈(reuse), 리사이클(recycle), 리듀스(reduce) 관점에서 지속 가능 특성이 도출되었다. 마린 세르의 패션콘텐츠 특성을 분석한 Back and Kim(2025)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적인 특성으로 리디자인 패션 디자인, 수공예 패션 디자인, 멀티 펑션(Multi-function) 및 슬로

우 패션 디자인이 주로 활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린 세르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지속 가능 디자인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Lee and Lee(2024)에 따르면 순환성, 기능성, 의외성, 장식성, 포용성의 특성으로 최종 분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지속 가능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환경성, 독창성, 경제성, 순환성 등으로 구분하거나, 리디자인, 리사이클, 리듀스 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조형적 특성의 유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일된 분석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형적 특성은 단순한 형태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 패션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표현 방식과 그 안에 내포된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루엣, 구조, 소재 등의 물리적 조형 요소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표현되는 상징적·해석적 표현 양상 또한 조형적 범주 안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1) 환경성

마린 세르 컬렉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은 쓰임이 다한 데드스톡 의류나 사용되지 않은 스카프, 타월, 페카펫, 테이블 커버와 베개 커버 등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적 실천을 넘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순환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브랜드 마린 세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사이클링 의상은 기존에 사용됐거나, 수거된 의상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사용함으로써 원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수고와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원단과 의복,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직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순환을 통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igure 3>은 2020 S/S 컬렉션 작품으로 이 시즌 컬렉션의 제목은 ‘MAREE NOIRE(기름 유출)’이다. 제목 그대로 기름 유출로 인하여 오염된 검은 색 바다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패션쇼는 프랑스 파리 서남부에 있는 오토유(Auteuil) 경마장 내부의 젖은 독 위에서 진행되었다(Deeny, 2019). 자연 습지를 연상시키는 이 장소

는 의도적으로 물기와 불안정한 지면을 노출한 상태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해양 기름 유출이라는 컬렉션의 주제와 연결된다. 작품은 스킨스쿠버 의상을 연상시키는 블랙 컬러 스웜웨어에 레드 컬러 스커트가 섞인 구조로, 레드 컬러 위에 불규칙적으로 번진 검은 얼룩은 바다 위에 남겨진 기름의 흔적을 연상시킨다. 이는 레드 컬러와 블랙 컬러의 색채 대비로 시각적 충격을 유도하며, 오염된 자연과 인간의 신체가 결합한 이미지를 통해 환경의 재난 위기감을 부각한다. <Figure 4>는 2025 S/S 컬렉션 작품으로 이 시즌의 컬렉션 제목은 ‘SEMPRE LEGATI’이다. 문화, 시간, 국가, 인간을 초월한 연결성을 의미하는 컬렉션으로 실제로도 마린 세르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파리가 아닌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에서 진행된 컬렉션이기도 하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확장과 동시에 컬렉션 주제처럼 문화를 융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튜트톱 드레스는 수거된 캔버스 에코백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사용되지 않았던 에코백 여러 개를 패치워크 시켜 어울리게 조합한 뒤 마린 세르만의 미학으로 재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슈즈와 헤어, 메이크업은 단순히 매치하여 전체적으로 드레스를 돋보이게 스타일링하였다. <Figure 5>는 2019 S/S 컬렉션 작품으로 페카펫을 이용하여 스커트를 만든 업사이클링



Figure 3. 2020 S/S.
From Nnadi, (2019).
<https://www.vogue.com>



Figure 4. 2025 S/S.
From Leitch, (2024b).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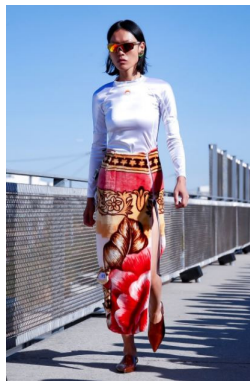


Figure 5. 2019 S/S.
From Holgate, (2018).
<https://www.vogue.com>



Figure 6. 2022 S/S.
From Holgate, (2021).
<https://www.vogue.com>

작품이다. 생명력을 잃은 페카펫을 스커트로 재탄생시키고 스포티한 이미지의 타이트한 상의를 매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마린 세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퓨처 웨어(future wear)라는 핵심 키워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의 미를 개척하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중첩된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2 S/S 컬렉션 작품인 <Figure 6>은 부엌용 타월과 같은 일상적이고 기능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재킷과 스커트, 부츠로 재구성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다. 반복적인 패턴과 직조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의복의 형태로 확장하여 소재 자체에 초점을 둔 디자인으로, 구조의 분해나 형태적 재구성의 맥락보다는 재료의 출처와 활용 방식 그 자체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자원의 순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활용 소재와 데드스톡 원단 자체가 시각적 조형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원순환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쿠티르적 장식성

2019 S/S 컬렉션 작품인 <Figure 7>은 ‘Hardcore

Couture’라는 주제의 컬렉션으로 오버사이즈 블랙 코트에 오래된 플라스틱 열쇠고리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부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열쇠고리 장식이 흔들리며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정적인 의복을 동적인 조형 요소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쿠티르의 정교하고 절제된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적 오브제의 장식을 통하여 마린 세르만이 표현할 수 있는 키치(kitsch)적인 쿠티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ure 8>은 2025 S/S 작품으로 드레이핑을 하여 완성된 디자인으로 상의에 매치한 목걸이 형태의 뷔스티에는 인터넷과 벼룩시장에서 수집한 목걸이를 재조합하여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2026 F/W 컬렉션 작품인 <Figure 9>는 폐기된 물감 튜브를 부착하여 제작하였으며 쿠티르적 수공예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실제 사용이 완료된 물감 튜브를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표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질감을 형성하며, 기존의 평면적 텍스타일과는 차별화된 조형성을 보여준다. 또한 물감 튜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비정형적 구성을 형성하였다. 물감 특유의 다양한 색채 조합은 비균형적 구도 속에서 시각적 리듬과 조형적 긴장감을 유도한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제작 방식과 함께 마린 세르의 쿠티르적 제작 특성



Figure 7. 2019 S/S.
From Holgate. (2018).
<https://www.vogue.com>



Figure 8. 2025 S/S.
From Leitch. (2024b).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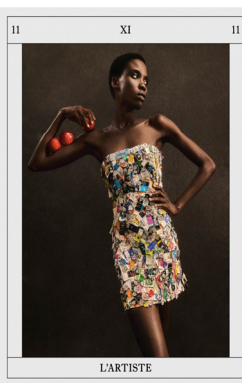


Figure 9. 2026 F/W.
From Verner. (2026).
<https://www.vogue.com>



Figure 10. 2025 F/W.
From Leitch. (2025).
<https://www.vogue.com>

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Figure 10>은 2025 F/W 컬렉션 작품으로 골드 컬러의 메달을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의복의 구조 자체를 형성함으로써 장식이 표면을 넘어 신체를 감싸는 독립적 구조로 확장된 쿠티르적 장식성을 보여준다. 특히 메달을 연결하는 스트랩을 레드 톤으로 구성함으로써 골드와 레드 컬러 간의 대비가 강조된다. 이는 장식 요소의 시각적 부각과 함께 화려하고 극대화된 장식미를 표현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마린 세르의 쿠티르적 장식성은 지속 가능 패션이 지닌 슬로우 패션의 맥락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패스트 패션의 대량 생산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수공예적 제작 방식과 장시간에 걸친 정교한 공정을 통해 의복의 완성도를 높이는 쿠티르적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재생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자원 활용을 위한 재조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제작 과정을 통해 심미적·조형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복의 지속적인 가치와 사용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과 연결되는 조형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마린 세르가 의복을 대하는 방식이

매우 진지하며, 정교한 재단과 드레이핑을 기반으로 유행과는 무관한 자신만의 고유한 미적 방향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통성

2020 F/W 컬렉션 작품인 <Figure 11>은 헤드 커버와 신체를 감싸는 구조를 통하여 종교적이면서도 의례적인 복식을 연상시키며 전통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수거된 베개 커버를 재구성한 텍스타일과 커튼의 프린지 장식을 결합하여 일상적 생활 직물을 의상으로 전환하여 가장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침구류가 신성하고 비일상적인 분위기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마린 세르만의 방식을 통하여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Figure 12>는 2022 F/W 컬렉션 작품으로 마치 14세기에 유행하였던 샤프롱(chaperon)을 쓴 것 같은 형태로 머리를 감쌌으며 의상 역시 14세기 중세 유럽 여성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연상시키는 로브 형태로, 신성하고 의식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이 로브 스타일의 의상은 프랑스 전통 누빔 기법의 텍스처인 부티(boutis)로, 수거된 부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업사이클링 기법으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끌어냈다.



Figure 11. 2020 F/W.
From Holgate.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12. 2022 F/W.
From Mower. (2022).
<https://www.vogue.com>



Figure 13. 2025 S/S.
From Leitch. (2024b).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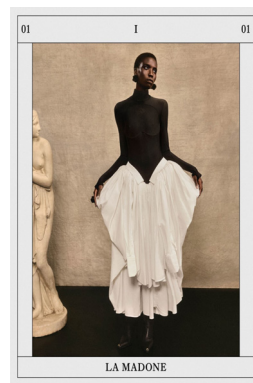


Figure 14. 2026 F/W.
From Verner. (2026).
<https://www.vogue.com>

2025 S/S 컬렉션 작품인 <Figure 13>은 근대 초기의 15~17세기에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트임이 있는 남성용 더블릿의 일부인 바스크(Basque) 스타일의 의상에 허리 부분에 양쪽으로 초승달 모티프를 넣어 쿠티르 풍 드레스를 완성하였다(Lee, 2024). 이 화이트 드레스는 베개 커버와 베드 시트(bed sheet)를 활용해 완성하였으며, 역사적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간의 연속성과 문화적 계승을 드러내었다.

<Figure 14>는 2026 F/W 컬렉션 작품으로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종교적 아이콘인 성모마리아의 이미지를 직접 적용하고 블랙과 화이트의 극명한 대비로 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이 되지 않았던 데스스톡 셔츠를 여러 개 이용하여 풍성한 스커트로 표현하였다. 같이 어우러진 조각상으로 인하여 미술사적 이미지를 한층 부각하며 전통성과 현대성의 결합을 보여준다. 마린 세르에 나타난 전통성은 과거 복식이나 종교적·문화적 상징을 접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의 양식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린 세르 특유의 감각을 통해 일상적이고 유연한 이미지로 재해석됨으로써 전통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성은 역사 복식과 문화적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함으로써 과거의 미적·문화적 가치를 현재의 패션 안에서 지속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재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기억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의 확장된 의미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순한 복고적 표현이나 역사적 이미지의 차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의미와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4) 의외성

<Figure 15>인 2023 F/W 컬렉션 작품은 금속 접시 형태의 오브제들을 체인 구조로 결합하여 상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데님이 지닌 실용적 이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전혀 다른 조형적 이미지로 전환했다. 특히 의복과는 무관한 식기류 오브제가 신체 장식으로 치환되면서 소재와 기능의 불일치에서 오는 시각적 긴장감과 의외성이 극대화된다. <Figure 16>은 2025 S/S 컬렉션 작품으로 테니스용 가방을 재구성하여 의복으로 전환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다. 테니스 가방의 원래 용도인 수납의 기능은 상실되고 드레스로 재탄생하여



Figure 15. 2023 F/W.
From Leitch, (2023a).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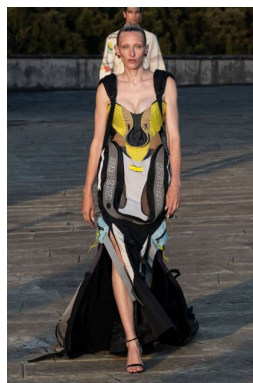


Figure 16. 2025 S/S.
From Leitch, (2024b).
<https://www.vogue.com>



Figure 17. 2023 F/W.
From Leitch, (2023a).
<https://www.vogue.com>



Figure 18. 2022 S/S.
From Holgate, (2021).
<https://www.vogue.com>

스포츠웨어 요소와 쿠티르적 감각이 융합된 새로운 조형미로 나타난다. 또한, 스포츠용품이 드레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능과 맥락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외의 면모가 드러난다. 2023 F/W 컬렉션 작품인 <Figure 17>은 모터사이클 용품을 드레스로 전환한 사례로, 기능적 오브제를 의복의 조형요소로 재구성한 디자인이다. 다양한 형태의 부품이 결합되면서 의외의 미학과 패브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소재감을 형성하였으며, 과감한 컬러 매치를 통해 실험적인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쇼에서는 대형 의류 폐기물로 제작한 거대한 구조물을 함께 연출하여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패션쇼를 하나의 서사적 공간으로 확장하였다.

<Figure 18>은 2022 S/S 컬렉션 작품으로 빈티지 커틀러리(cutlery)를 재활용하여 이어링과 네크리스로 재구성하였다. 금속 식기를 장신구로 전환함으로써 일상적 오브제의 기능적 맥락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셔츠는 수거된 테이블 매트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적인 생활용 텍스타일을 의복의 구조로 변환함으로써 독특한 질감과 형태를 형성한다. 테이블 매트, 커틀러리와 같이 식사 행위에 사용되는 오브제를 의복과 장신구로 전환함으로써, 일상적 기능이 신체를 둘러싼 조형

요소로 이동하는 맥락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서로 다른 기능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며 예기치 못한 조합을 형성하는 의외성을 유도한다. 마린 세르 컬렉션에 나타난 의외성은 일상적 소재나 기능을 전환하여 비일상적 조형으로 재구성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질적 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시각적 긴장과 새로운 의미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의외성은 예측을 벗어난 조합을 통하여 일종의 유희성과 감각적 환기를 제공하며, 관람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다양성, 포용성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조형적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기존 소재와 기능의 맥락을 새롭게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방식과 연결되며, 지속 가능한 패션이 지닌 재구성의 미학을 드러내는 조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각적 실험성을 넘어 버려진 소재를 새로운 조형 언어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속 가능 패션만의 차별적 표현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해체성

<Figure 19>는 2024 F/W 컬렉션 작품으로 수거된 티셔츠를 해체한 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으며, 기존 의복의 구조를 분해하고 서로 다른 조각들을 결합함으로써 해체적 조형성을 드러낸다. 다양한



Figure 19. 2024 F/W.
From Leitch, (2024a).
<https://www.vogue.com>



Figure 20. 2022 F/W.
From Mower, (2022).
<https://www.vogue.com>



Figure 21. 2023 F/W.
From Leitch, (2023a).
<https://www.vogue.com>



Figure 22. 2022 F/W.
From Mower, (2022).
<https://www.vogue.com>

프린트와 로고가 원형의 흔적을 유지한 채 노출되며, 패치워크 방식으로 연결된 구성은 비정형적 실루엣과 실험적인 조형미를 형성한다. 2022 F/W 작품인 <Figure 20>은 팬데믹 이후 선보인 첫 패션쇼 작품으로, 데드스톡 카모플라주(camouflage) 원단과 수거된 베게 커버를 해체한 후 재조합하여 구성된 드레스이다. 원래의 구조를 분해한 뒤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카모플라주 원단이 지닌 군사적·기능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혀 다른 조형적 의미로 전환하고 있다.

2023 F/W 컬렉션 작품인 <Figure 21>은 수거된 여러 문양의 브로케이드(brocade) 원단을 패치워크 방식으로 조합한 후 레이스를 덧대어 원피스와 재킷으로 제작하였다. 서로 다른 브로케이드 패턴과 레이스의 조화는 마린 세르 특유의 정교한 커팅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재해석하였으며, 기존 원단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다.

2022 F/W 컬렉션 작품인 <Figure 22>는 수거된 데드스톡 진(jeans)을 여러 벌 해체한 후 재구성한 작품으로 기존 데님 원단의 구조와 형태를 분해하

여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해체적 조형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데님이 지닌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절제되고 구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마린 세르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성은 기존 의복 구조를 분해하고 비대칭적으로 재구성하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재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적 질서를 나타내고 더는 사용되지 않는 원단과 폐자재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원의 순환과 더불어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체성은 폐소재와 기존 의복 구조를 분해·재조합하는 업사이클링 과정 자체가 조형적으로 드러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형태 실험이나 구조적 변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과 재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만의 조형적 의미와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Formal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in Marine Serre and their expression methods.

Form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cases	Materials	Expression methods and formative mean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ad stock fabric, recycled garments	Up-cycling design through the recombination and assemblage of recycled materials
Couture-like decorative characteristics		Recycled objects, handcrafted embellishment materials	Craft-based embellishment, repetitive arrangement of objects, and expansion of volumetric forms

Formal characteristics	Representative cases	Materials	Expression methods and formative meaning
Traditionality		Vintage textile, traditional costume references	Adoption of religious imagery and traditional costume, and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symbolic elements
Unexpectedness		Everyday objects, heterogeneous materials	Transformation of function,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and morphological variation through contextual displacement
Deconstructiveness		Reused garments, fragmented fabrics	Deconstruction of conventional garment structures followed by asymmetrical recomposition

IV. 결 론

본 연구는 브랜드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오늘날 패션에서 지속 가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되고 확장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을 재구성하고, 실제 컬렉션 사례에 적용하여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은 데드스톡 원단, 폐의류, 생활용 텍스타일, 빈티지 오브제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방식을 기반으로 환경적 실천을 넘어 새로운 조형적 표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성은 소재의 재사용과 순환적 가치에 초점을 두며 나타났으며, 쿠티르적 장식성은 수공예적 기법과 장인정신을 통해 제작 과정의 가치와 의복

의 완성도를 강조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성은 역사 복식 및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의외성은 이질적 소재와 기능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관계와 감각적 환기를 형성하였다. 해체성은 기존 의복 구조의 분해와 재조합을 통해 비정형적 형태와 새로운 구조적 질서를 보여주었으며, 지속 가능성과 결합한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마린 세르의 지속 가능한 패션은 각 특성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상호 결합하여 복합적인 조형 언어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을 환경적 관점을 넘어 조형 미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과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환경성, 쿠티르적 장식성, 전통성, 의외성, 해체성의 범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이 실제 패션 디자인 안에서 어떠한 조형 언

어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동시대 패션 디자인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전략, 업사이클링 기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마린 세르의 전체 컬렉션 가운데 공식 유튜브 채널, 디자이너 인터뷰 및 공식 자료를 통해 업사이클링 및 데드스톡 소재 활용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례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미지 및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형 미학적 해석 중심의 연구라는 점에서 정량적 검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및 내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aidoo, A. (2024). Marine Serre Fall 2024 Fashion Show Review. *The Impression*. Retrieved April 20, 2026, from <https://theimpression.com/marine-serre-fall-2024-fashion-show-review/>
- Baek, K. E., & Kim, S. J. (2025).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in Marine Serre's instagram.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7(2), 83-95. doi:10.30751/kfcd.2025.27.2.83
- Baek, K. W., Yoo, T., & Jo, E. Y. (2014). Sustainable design applied in fashion marketing: Focus on domestic fashion market case analysis.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44, 183-194. doi:10.21326/ksdt.2014.44.016
- Caldwell, O. (2026, March 3). The Grace of Time: Marine Serre FW26. *A Shaded View on Fashion*. Retrieved April 27, 2026, from <https://ashadedviewonfashion.com/2026/03/03/the-grace-of-time-marine-serre-fw26/>
- Deeny, G. (2019, September 24). Marine Serre's Marée Noire on a dark day at the racetrack opens Paris Fashion Week. *Fashion Network*. Retrieved April 27, 2026, from <https://www.fashionnetwork.com/news/Marine-serre-s-maree-noire-on-a-dark-day-at-the-racetrack-opens-paris-fashion-week,1140544.html>
- Du, Y. Y., & Kim, M. H. (2021). A study on the convergence re-design for sustainable fashion. *Korea Society of Society of Science & Art*, 39(1), 103-113. doi:10.17548/ksaf.2021.01.30.103
- Eum, Y. M., & Oh, K. W. (2023). A study of upcycling fashion design from a sustainable perspective: Focusing on Marine Serre.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5(4), 29-44. doi:10.30751/kfcd.2023.25.4.29
- Holgate, M. (2018, September 25).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
- Holgate, M. (2020, February 25). Marine Serre Fall 2020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rine-serre>
- Holgate, M. (2021, September 27). Marine Serre Spring 2022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2-ready-to-wear/marine-serre>
- Hwang, B. A., & Lee, J. S. (202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Focused on the extension of the use period of clothes. *The Korea Society of Fashion Business*, 27(4), 1-20.
- Kwark, E. Y. (2025, February 4). 매년 330억 벌 버려지는 옷...“수명 남은 옷 교환하세요” [“Clothes worth 33 billion won are discarded every year... Exchange clothes that still have life left in them”]. *News Penguin*.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45>
- Kim, S. Y. (2020). A study on design analysi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er Marine Serre's works: Focusing on fashion collections from 2017 F/W to 2019 F/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Culture*, 26(1), 54-69.
- Kim, S. H., & Lee, J. J. (2006). The concept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and the principles.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7(3), 225-237.
- Lee, J. S. (2024, November 7). ‘마린 세르’라는 우주 [The Universe of ‘Marine Serre’]. *Harpers Bazaar Korea*. Retrieved April 25, 2026, from <https://www.harperbazaar.co.kr/article/1872730>
- Lee, S. J., & Lee, Y. H. (2024).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in Marine Serre collection. *The Research of the Costume Culture*, 32(1), 108-123. doi:10.29049/rjcc.2024.32.1.108
- Leitch, L. (2023a, January 21). Marine Serre Fall 2023 mens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3-menswear/marine-serre>
- Leitch, L. (2024a, March 4). Marine Serre Fall 2024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3,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4-ready-to-wear/marine-serre>

- Leitch, L. (2024b, June 12). Marine Serre Spring 2025 mens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3,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5-menswear/marine-serre>
- Leitch, L. (2025, March 10). Marine Serre Fall 2025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5,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5-ready-to-wear/marine-serre>
- Nnadi, C. (2019, September 24). Marine Serre Spring 2020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marine-serre>
- Marine Serre Website. (n.d.). *Marine Serre*. Retrieved April 25, 2026, from <https://www.marineserre.com/en/focus/unique-pieces>
- Myung, S. J. (2022, March 10). Marine Serre 2022 F/W Collection. *W Korea*. Retrieved April 27, 2026, from <https://www.wkorea.com/2022/03/10/marine-serre-2022-f-w-collection/>
- Mower, S. (2022, March 5). Marine Serre Fall 2022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3,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menswear/marine-serre>
- Oxford English Dictionary. (n.d.). Sustainable.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April 29, 2026, from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sustainable>
- Wi, S. H., & Jung, J. W. (2021).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with sustainable design elements. *Journal of the Fashion Design*, 21(3), 105-118. doi:10.18652/2021.21.3.7
- Woo, S. K., & Chung, J. Y. (2015). Development of fashion product design applying sustainable design elem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Culture*, 21(3), 434-444.
- Verner, A. (2026, March 2). Marine Serre Fall 2026 ready-to-wear by Marine Serre. *Vogue*. Retrieved April 22, 2026,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6-ready-to-wear/marine-serr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in Marine Serre

Jihyun Lee⁺

Concurrent Profess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found in the collections of the fashion brand Marine Serr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s how sustainability is visually expressed with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methodology combines a theoretical review based on previous studies with a case analysis of Marine Serre's collec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collection images and materials obtained from professional fashion platforms and official channels. After reviewing various classification system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constructed the analytical criteria into five formative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uture-like decorative characteristics, traditionality, unexpectedness, and deconstruc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fers to resource circulation and reuse; couture-like decorative characteristics emphasize handcrafted and decorative expressions; traditionality involves the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costumes and cultural elements; unexpectedness reflect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materials and functions; and deconstruction denotes the disassembly and recombination of conventional garment structures. The scope of analysis includes collections from Marine Serre's debut at Paris Fashion Week in the Spring/Summer 2018 season to the Fall/Winter 2026 season. The selected cases focused on works employing upcycling techniques identified through designer interviews, the official websites, the YouTube channels, Instagram, and fashion-related articles and reports. The findings reveal that Marine Serre's sustainable fashion design extends beyo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and creates distinctive formative expressions through the recombination of various materials and structures. Furthermore, these formative characteristics tend to be manifested in integrated and hybrid expressions rather than isolated element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from a formative perspective rather than limiting it to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uture studies should further explore the aesthetic values and narratives embedded within these formative characteristics.

Key words : sustainability, Marine Serre, upcycling, formative characteristics